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과제

The Characteristics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에서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 베이비 붐 세대의 현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특성을 비롯해 노년기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고령사회의 주역이 될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 실태와 미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고령자정책의 초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예방적인 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을 위해 무엇보다 미리부터 노후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비하는 문화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노후설계서비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셋째, 미리부터 노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설계서비스 이외에도 별도의 체계적인 커리어 개발 시스템의 도입이 요청된다.

1. 서론

최근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뜨겁다. 201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노년기 진입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우선 이들의 은퇴는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전조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규모면에서 거대 인구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년기 진입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이

유는 베이비 붐 세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베이비 붐 세대는 여러 측면에서 현재의 노인세대와 다른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이전 노인세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가 겪은 특수한 사회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이전 노인세대와 확연히 다른 문화적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베이비 붐 세대는 노후 생활에 있어 이전 세대에 비해 일자리, 자원봉사와 같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높아진 선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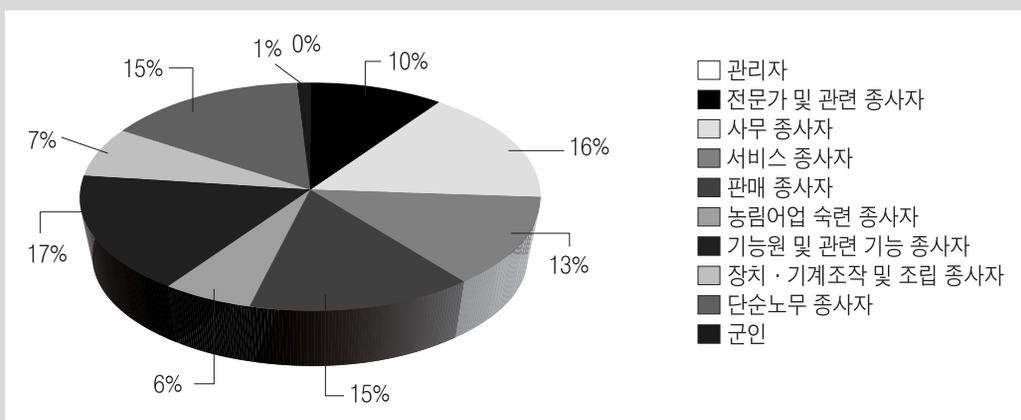
이는 단지 경제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및 자아실현과 같은 보다 보편적인 욕구 추구와도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공적인 고령사회 대응여부는 예비노년 세대인 베이비 붐 세대의 이러한 욕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의 수립에 의해 상당부분 결정된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는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중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 베이비 붐 세대의 현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특성을 비롯해 노년기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고령사회의 주역이 될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 특성 및 욕구

베이비 붐 세대의 95.4%는 경제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경제활동이 전혀 없는 비율은 4.6%에 불과하다. 남성의 경우 99.9%, 여성의 경우에도 91.4%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년도별로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 붐 세대의 95%가, 그리고 후기 베이비 붐 세대의 95.9%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도시 거주자들의 95.2%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으며 읍면부 중심의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96.5%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도시와 농어촌 지역 거주자들 간에 경제활동 경험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도 큰 차이 없이 비슷하지만 오히려 초졸 및 중졸 이하 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직

그림 1. 베이비 붐 세대의 최장기 종사직종 분포



자료: 정경희·이소정 외(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재구성

종 분포를 살펴보면 베이비 붐 세대 가운데 사무직 이상의 화이트칼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관리자 같은 고위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4.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27.7%, 숙련 기능직 종사자가 29.3%,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17.5%로 직업계층 간에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베이비 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계층의 측면에서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직업계층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베이비 붐 세대의 4.1%는 최장기종사 직종에 30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년 이하로 단기 종사한 경우가 11.1%에 달한다. 또한 20년 이상 30년 이하 종사한 사람들의 비율이 27.9%,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비율이 36.9%로서 노년기 진입 전까지 아직 추가로 근로할 시간이 남았음을 고려할 때 전체 베이비 붐 세대의 최소 1/3 이상은 완전노령연금 수급 의무기간인 20년 이상 근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성의 1%가 5년 이하의 단기 근속을 한 반면 완전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20년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근속을 한 사람들의 비율은 4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5년 미만(22.2%), 5~10년 이하(19.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이 공적 연금을 통한 경제적 노후준비가 취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읍면부에 비해 5년 이하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12.7%, 5~10년 이하의 근속비율이 21%로 월등히 높은 반면 읍면부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비율이 41.7%로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종사산업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붐 세대의 79.7%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의 비율은 2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있는 79.7% 가운데 25.5%는 현재 최장기간 종사했던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2%는 최장종사직종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최장기 종사직종과 다른 일이라고 응답한 586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표 1>과 같이 특정 직종에서의 증감이 나타났다. 우선 관리자 직종이 늘어난 반면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26%에서 3%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서비스 및 판매 종사

표 1. 베이비 붐 세대의 직종 이동

(단위: %)

구분	최장 종사직종	현 종사직종
관리자	4.8	14.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7	5.2
사무 종사자	26.0	3.8
서비스 종사자	10.4	17.4
판매 종사자	12.3	14.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7	2.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1.7	4.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5.0	11.2
단순노무 종사자	7.5	26.1
군인	0.9	
기타		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결과보고회 및 학술세미나 자료집.

자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기능직의 경우 급감한 반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급증했다.

베이비 붐 세대의 55.7%는 현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 1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현업에 만족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현업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제 현업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베이비 붐 세대의 77.8%가 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3.4%에 불과했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8.2%는 현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정감을 가지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의 약 1/3에 가까운 28.3%가 현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베이비 붐 세대의 83.4%는 현업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준비(6%) 비율과 취미 및 여가개발(5.7%)의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베이비 붐 세대가 일자리를 상실하거나 은퇴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덜하며 또한 은퇴이후에 일자리에 대한 욕구보다는 취미나 여가개발의 욕구 또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제3의 잠재적 욕구가 더 크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노하우나 정보에 대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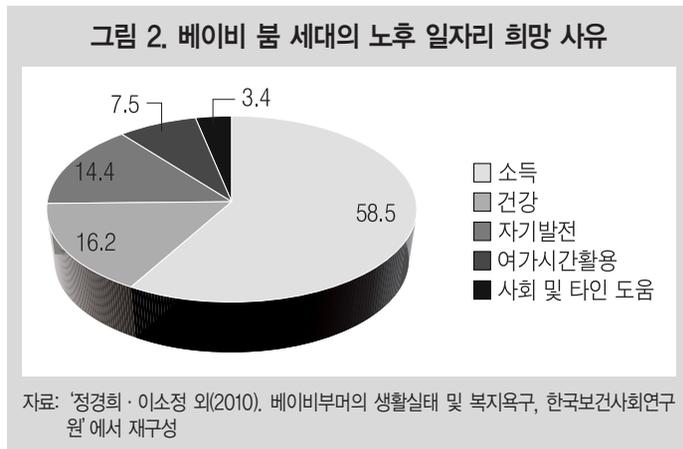
재가 은퇴 후를 대비한 준비의 부재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집단별로 세분화시켜서 살펴보면, 전기 베이비 붐 세대, 여성, 농어촌지역 거주자, 저학력자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해 준비하는 비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상대적으로 소득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을 수 있는 집단임을 고려할 때 상기에 제시한 가능성들 가운데 현 베이비 붐 세대 역시 기존 노인 세대와 마찬가지로 노하우나 정보의 부재로 인해 은퇴 이후에 특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 붐 세대가 미래 노년기에 진입한 이후 경제활동과 관련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붐 세대의 63.9%는 노후에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 단일 사유로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욕구가 크게 나타났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경제적인 욕구로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도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베이비 붐 세대의 58.5%는 소득을 위해 노후 일자리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건강을 위해’가 16.2%, ‘자기발전을 위해’가 14.4%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사유 외에 건강, 자기발전, 여가활용, 사회공헌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41.5%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노인 일자리 정책의 개발에 있어 단지 소득 보전이 목적이 아닌 보다 확장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 인력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수

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아닌 자기발전, 여가선용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고소득 퇴직자들의 인력 활용 정책은 소득 보전의 측면과 다른 각도에서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사유로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며, 반대로 도시에 거주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족 내 역할수행으로 인해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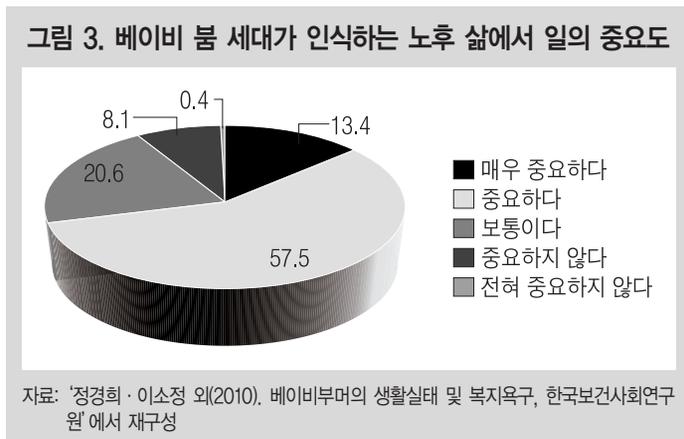


베이비 붐 세대 가운데 70.9%는 노후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특히 남성일수록, 배우자가 없고 독거가구 이거나 미혼 자녀와 거주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 일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중간수

노후에 일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 (69.3%)은 여가를 즐기고 싶은 욕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내 역할수행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전체의 17.1%에 해당되며 특히 후기 베이비 붐 세대일수록 여가를 즐기고 싶은 이유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남성일수록 동일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싶은 이유 보다는 '가족 내 역할수행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21.6%)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보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육

준인 경우보다 초졸 이하로 낮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일수록 일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하는 U자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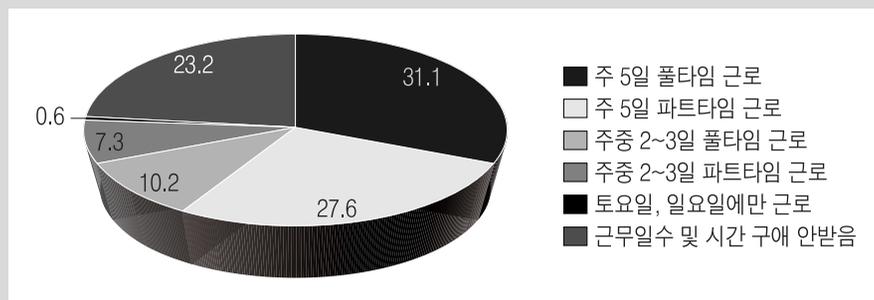
노후에 희망하는 근로형태에 대해 베이비 붐



세대의 31.1%는 노후에도 여전히 주 5일 풀타임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 5일 파트타임 근무 또는 주중 2~3일 풀타임 근무 등과 같이 보다 유연화 된 파트타임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이 68.9%로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베이비 붐 세대의 70%는 노후 일자리로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 또는 이전에 했던 일과 유사한 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평생 습득한 직업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에 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일을 원하는 비율도 30%에 달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 특히 전기 베이비 붐 세대에 비해 후기 베이비 붐 세대가 새로운 직종의 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도시 거주자일수록 새로운 직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은 다소 이질적인 분포를 보이는데, 교육수준이 낮거나 높은 사람들은 이전의 직종과 유사하거나 같은 일을 희망

그림 4. 베이비 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 근무 조건



자료: '정경희·이소정 외(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재구성

표 2. 베이비 붐 세대가 희망하는 노후 일자리 유형(교육수준별)

(단위: %, 명)

구분	전체	교육수준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 이상
이전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	35.3	44	37.3	34.1	31.6
이전에 했던 일과 유사한 일	34.7	30.7	34.1	31.8	41.6
이전에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	30	25.3	28.6	33.9	26.7
기타	0.1	0	28.6	0.1	0
계	100	100	100	100	100
(명)	1,934*	225	401	817	489

자료: '정경희·이소정 외(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후에 일하기를 원하는 193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오히려 고졸, 중졸과 같은 중간 교육수준의 사람들은 새로운 직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분석의 함의와 정책과제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 실태와 미래 경제 활동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고령자정책의 초점이 '중간층'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중간층이 갖는 의미를 보다 구체화시켜보면 대략 직업계층으로는 사무직, 교육수준으로는 고졸 정도의 중간 교육 계층을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경제활동의 측면에서 이들이 '위기' 집단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현 베이비 붐 세대의 최장기종사직종의 근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중졸 또는 고졸의 중간 학력 계층에서 5년 이하의 단기 근속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10~20년 이하 근속의 비율이 42.5%로 가장 높았고 학력수준이 초졸이하로 낮은 경우에도 30년 이상 장기근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중간계층이 상층 또는 하층에 비해 근속기간이 짧아 커리어의 공백을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길게 경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현 베이비 붐 세대 가운데 직종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무직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관리직 또는 단순 노무 중심의 블루칼라 직종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 가운데 상위의 관리직으로 이동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다수는 그 인적 자본에 걸맞는 커리어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노후 일자리에 대한 욕구에서도 나타나, 전술했듯 희망하는 노후 일자리 유형에서 교육수준이 낮거나 높은 사람들은 이전의 직종과 유사하거나 같은 일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오히려 고졸, 중졸과 같은 중간 교육수준의 사람들은 새로운 직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중간층의 경우 지금까지 정책적 관심에서 제외되어 왔다. 저소득, 저학력층의 경우 절박한 욕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고학력, 고소득층의 경우 인적 자원의 사회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요즘 정책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중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인 인적 자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 앞으로 중간층, 사무직 종사자 등에 초점을 맞추어 베이비 붐 세대 가운데 가장 다수의 집단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게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이들을 대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예방적인 고령사회 정책의 수립을 위해 무엇보다 미리부터 노후에 대해 다각적으

로 대비하는 문화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노후설계서비스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베이비 붐 세대의 83.4%는 현업 중단 이후에 대해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상 노후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는 높은 것으로 응답해, 인식과 태도에 있어 불일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베이비 붐 세대의 다수가 현업에서 퇴직한 이후에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방법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베이비 붐 세대의 79.7%가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직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후설계 교육과 노후설계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자영업자와 주부 등 직장에 포괄되지 않는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베이비 붐 세대가 노후에 대해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미리부터 노후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설계서비스 이외에도 별도의 체계적인 커리어 개발 시스템의 도입이 요청된다. 베이비 붐 세대의 다수는 노년기 일자리에 대해 보다 유연화된 형태의 근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베이비 붐 세대의 1/3은 노년기에 현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직종에 도전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베이비 붐 세대의 경제활동이 단순히

경제적 욕구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삶의 질향상 등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및 커리어 개발을 위한 제반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통해 베이비 붐 세대의 욕구를 반영한 노년기 커리어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재 고용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舊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취업상태의 '취약계층'을 사업의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비 붐 세대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가 체계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본 컨셉이 맞지 않는다. 또한 취업알선서비스로서 고령자 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들 기관 역시 구인구직을 통한 취업 '알선'이 주요 사업이며 포괄적인 커리어 컨설팅,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훈련 제공 등의 업무는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 예비 고령자를 대상으로 퇴직 후의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에서부터 알맞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연계, 그리고 구직알선 및 사후관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고령자 커리어 개발 시스템의 도입은 베이비 붐 세대의 성공적 노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책과제이다. **보건복지**